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현주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Hyun-Ju Yeo

Division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공감능력 과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173명의 간호대학생이었고,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IBM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학년, 실습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능력은 학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 및 타인인식으로, 이들 변인은 공감능력을 51.9%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내면에 초점을 두며, 치료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간호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 intervention strategy for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enhancement by confirming the degree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diversity acceptance, emotion recognition clarity, and other person's recognition. The subjects were 173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other-awareness, and empathy. We carried out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Statistics 19.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y a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cademic year and practice experience, and empath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academic year,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and other-awarenes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ere academic year,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and other-awarenes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empathy ability as 51.9%. In order to improve empathy ability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we should adopt a nursing education program that can accept subjects with various backgrounds and clearly recognize emotions in a therapeutic setting.

Keywords : Empathy,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Other-awareness,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Yeo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el: +82-10-3310-7194 email: dellia99@naver.com

Received November 25,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Revised (1st December 21, 2016, 2nd January 2,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로 국내 간호대상자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대상자의 요구 수준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대상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최적의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1, 2]. 이에 간호계에서는 공감을 모토로 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3].

공감능력이란 타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4], 간호사에게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5]. 이러한 공감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6],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만족감을 준다[7]. 따라서 공감능력은 간호대학생이 간호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간호대학생은 의료조직 안에서 접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구성원들과 협동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양성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 수용도는 자신과 다른 믿음, 신념, 가치관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 및 문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8],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의 경우는 많은 대학에서 인간관계기술, 사고 영역의 확대를 위한 다양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9].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다양성 경험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 다양성 이해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에게서 공감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간호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와 공감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태도, 즉 다양성 수용도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와 공감능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정서는 사고, 감정,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신체적 상

태로,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2]. 자신의 정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능력을 정서인식 명확성이라고 하는데[13], 사람은 정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고 표현할 지를 결정하며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14].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체감각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하기 때문에 정서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15].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되면 자신의 욕구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18] 정서인식과 대학 생활 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게 된다[19]. 즉,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타인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인식 명확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인식은 타인에 대한 주의, 관심 및 의식으로 타인의 내면과 외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연상적, 회상적 주의나 관심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20]. 선행연구에서 타인인식은 의사소통에서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1, 22]. 뿐만 아니라 타인인식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촉진시키는 요소로서[23] 간호대학생의 타인인식과 공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24]. 공감은 타인의 정서 및 생각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비언어적 소통 방식 중 하나인 타인의 외면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타인인식은 공감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타인인식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능력[25, 26], 대인관계능력[27], 임상수행

능력[26]에 대한 예측변수로 공감능력이 다루어졌거나, 전문직관[25], 자아탄력성[27], 자아존중감[26] 등의 변수와 공감능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 명확성 및 타인인식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양성수용도, 정서인식 명확성, 타인인식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련 요인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효과크기 $f^2 = .15$, 유의수준 (α) .05, 검정력 ($1-\beta$) .95로 산출한 결과 166명이었으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목표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173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4일부터 14일까지로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대학 교수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과정에서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을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다양성 수용

다양성 수용도는 Pascarella 등[8]이 개발한 다양성 수용 척도를 Lee [28]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총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8점에서 최고 56점의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성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다.

2.3.2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은 Salvey 등[14]이 개발한 상위-기분 척도를 Lee 등[29]이 번안한 한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의 하부요인 중 정서인식 명확성만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등[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였다.

2.3.3 타인인식

타인인식은 Eun [21]의 타인인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21점에서 최고 10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였다.

2.3.4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30]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와 Bryant 등[31]이 개발한 Emotional Empathy Scale을 Park [32]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대인관계반응지수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am [3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집단 간 차이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 23명(13.3%), 여학생 150명(86.78%)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86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 53명(30.6%), 3학년 34명 (19.7%)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16명(67.1%), 있는 대상자가 57명(32.9%)이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24명(13.9%), 있는 대상자가 149명(86.1%)이었다.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0명(5.8%), 있는 대상자는 163명(94.2%)이었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85명(49.1%), 있는 대상자는 88명(50.9%)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3 (13.3)
	Female	150 (86.7)
Academic year*	Sophomore ^a	86 (49.7)
	Junior ^b	34 (19.7)
	Senior ^c	53 (30.6)
Religion	No	116 (67.1)
	Yes	57 (32.9)
Part-time experience	No	24 (13.9)
	Yes	149 (86.1)
Volunteer experience	No	10 (5.8)
	Yes	163 (94.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85 (49.1)
	Yes	88 (50.9)

3.2 대상자의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 정도

대상자의 다양성 수용은 평균평점 34.60±8.81점이었고, 정서인식명확성은 38.08±6.32점, 타인인식은 평균평점 68.45±12.73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도는 평균평점 109.66±11.48점 이었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other-awareness and empathy(N=173)

Variables	Min	Max	Mean±SD
Diversity acceptability	10	56	34.60±8.81
Emotional clarity	20	52	38.08±6.32
Other-awareness	32	95	68.45±12.73
Empathy	76	137	109.66±11.4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도는 학년 ($F=20.710$, $p<.001$), 실습경험 ($t=5.71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공감능력 정도는 2학년과 3학년 보다

4학년이 높았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empath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Variables	Categories	Empathy		
		Mean±SD	t/F	p
Gender	Male	110.48±12.42	0.945	.734
	Female	109.53±11.36		
Academic year*	Sophomore ^a	106.69±9.81	20.710	<.001 (c>a,b)
	Junior ^b	105.35±13.35		
	Senior ^c	117.25±8.946		
Religion	No	110.51±10.97	2.579	.185
	Yes	107.93±12.38		
Part-time experience	No	109.67±12.29	.009	.997
	Yes	109.66±11.39		
Volunteer experience	No	106.80±8.99	3.034	.331
	Yes	109.83±11.6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106.75±9.89	5.713	<.001
	Yes	112.47±12.24		

*Scheffé test

3.4 대상자의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 간의 관계

공감능력 정도는 다양성 수용($r=.494, p<.001$), 정서인식명확성($r=.478, p<.001$) 및 타인인식($r=.540, p<.001$)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양성 수용은 정서인식명확성($r=.231, p<.001$), 타인인식($r=.440, p<.001$)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은 타인인식($r=.239, p<.001$)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other-awareness and empathy (N=173)

Variables	Diversity acceptability	Emotional clarity	Other-awareness	Empathy
	r (p)			
Diversity acceptability	1			
Emotional clarity	.231 (<.001)	1		
Other-awareness	.440 (<.001)	.239 (<.001)	1	
Empathy	.494 (<.001)	.478 (<.001)	.540 (<.001)	1

3.5 대상자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공감능력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실습경험을 포함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공감능력 정도와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간에 .231~.540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2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공감능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 한계는 .782에서 .85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는 1.171~1.279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하여 Durbin 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93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등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해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882~2.060으로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모두 충족되었다. 회귀모형의 F값은 47.433, $p<.001$ 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년, 실습경험,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및 타인인식을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 ($\beta=0.250, p<.001$)과 다양성 수용($\beta=0.255, p<.001$), 정서인식명확성($\beta=0.249, p<.001$) 및 타인인식($\beta=0.323, p<.001$)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공감능력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1.9%였다.

Table 5. Predictors of empathy (N=173)

Predictors	β	SE	β	t	p
(Constant)	59.065	4.681		12.617	<.001
Academic year ^a	6.213	1.421	.250	4.371	<.001
Diversity acceptability	.332	.078	.255	4.283	<.001
Emotional clarity	.453	.106	.249	4.273	<.001
Other-awareness	.291	.054	.323	5.400	<.001

$R^2=.530, \text{Adj } R^2=.519, F=47.334, p<.001$

Academic year^a(0=Sophomore, Junior, 1=Senior)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정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도는 평균 109.66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Nam [3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평균 108.6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다양성 수용, 정서인식명확성 및 타인인식 이었고, 이들 변인들의 공감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51.9%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타인인식으로,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다른 사람에 대한 주나 관심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았으며, 주로 내적 타인인식과 공상적 타인인식이 주로 관련되며 외적 타인인식은 관련이 거의 없었다는 Kang [24]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므로, 공감능력 향상에 있어서 타인의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초점을 둔 상상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다양성 수용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도 높았다. 이는 대학시절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대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Antonio 등[34]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대상자들의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효율적으로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다양성 수용도를 증진시켜, 간호대학생들이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학년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4

학년 간호대학생은 2, 3학년 간호대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공감 정도가 낮았다는 연구[35]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36]학년에 따른 공감능력에 차이가 스트레스의 수준과 관계가 있을 있으나, 한편으로 상담이나 치료 경험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공감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24]로 볼 때, 본 연구에서 4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공감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참여기회가 높았을 가능성과 실습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어 공감능력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기기 위해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네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정서인식명확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을 명확히 할수록 간호대학생은 공감능력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19]와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행동을 동기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학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타인인식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인인식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타인인식은 타인의 외적 인식, 내면적 인식, 공상적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내면의 인식과 공상적 인식은 공감능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상황을 체험해보고, 다양성 수용하며, 치료적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교육 과정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공감능력을 많이 다루었으나, 실제적으로 공감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며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학년, 실습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능력은 학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 타인인식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다양성 수용도, 정서인식명확성 및 타인인식으로, 이들 변인은 공감능력을 51.9%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내면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치료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Campinba-Bacote.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3, no. 3, pp. 181-184, 2002.
DOI: <https://doi.org/10.1177/10459602013003003>
- [2] W. 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222-229, 2011.
DOI: <https://doi.org/10.4094/jkahn.2011.17.4.222>
- [3] S. Tanzia, G. Biascob, W. F. Baile. Enhancing the empathic connection: using action methods to understand conflicts in end-of-life care. *Journal of Patient Experience*, vol 1, no. 1, pp. 14-21, 2014.
DOI: <https://doi.org/10.1177/237437431400100104>
- [4] D. Rogers, C. Hudson.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2, no. 3, pp. 119-132, 1995.
DOI: <https://doi.org/10.1007/BF01740298>
- [5] M. H. Jeong, M. A. Shin.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fo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89-105, 2014.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9.6044>
- [6] S. Y. Chung. *The effects of breath meditation with neurofeedback on memory and concentration of healthy adult volunt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7] S. Moghaddasian, S. Lak Dizaji, M. Mahmoudi. Nurses empathy and family needs in the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2, no. 3, pp. 197-201, 2013.
DOI: <https://doi.org/10.2307/2943979>
- [8] E. T. Pascarella, M. Edison, A. Nora, L. S. Hagedorn, P. T. Terenzini. Influences of student's openness of diversity and challenge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67, no. 2, pp. 147-195, 1996.
- [9] E. I. Jeong. Effects of diversity acceptability and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on career adaptability for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8, no. 2, pp. 307-337, 2016.
- [10] I. P. Gurin, E. I. Dey, S. Hurtado, G. Gurin.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72. no. 3, pp. 330-365, 2002.
DOI: <https://doi.org/10.17763/haer.72.3.01151786u134n051>
- [11] H. J. Nam. Effects of a Diversity Education Program on the Students' Empathy Ability, Cultural Sensitivity and Disabilities Acceptance Attitudes in an Inclusive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3, pp. 53-76, 2014.
- [12] H. K. Kwon, J. H. Jang. Impacts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acceptance on counseling outcomes in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3. no. 4, pp. 811-831, 2011.
- [13] C. L. Gohm, G. L. Clore.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4, pp. 594-607,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4.3.594>
- [14] P. Salovey, J. D. Mayer, S. L. Goleman, C. Turney, P.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ington, DC.: APA. 125-154, 1995.
- [15] M. Berking, P. Wupperman.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recent findings,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vol. 25, pp. 243-255.
DOI: <https://doi.org/10.1097/ycp.0b013e3283503669>
- [16] Y. W. Choi, S. J. Le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4, pp. 887-901, 2004.
- [17] S. M. Park, C. G. Kim, C. S. Kyung.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f nursing student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00-311, May,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00>
- [18] S. M. Park, C. C. Kim, S. K. Cha,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nursing student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00-311,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00>
- [19] H. K. Lee, J. H. Kim. Effects of role acceptance on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1, pp. 15-29, 2001.
- [20] H. G. Eun, J, Y. B. The Elementary students'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1, pp. 191-204. 2004.
- [21] H. G. Eun,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9, pp. 136-157, 2001.
- [22] S. B. Im, B. K. Min, J. K. Goh.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Health Communication*, vol. 2, no. 2, pp. 105-112, 2007.
- [23] E. J. Oh, S. H. Kim, J. Y. Kim, S. R. Kim,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4, pp. 426-434, September, 2015.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4.426>
- [24] M. O. Kang.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Korean Philosoph.*, vol. 47, pp. 207-238, March, 1988.
- [25]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3, pp. 1685-1697, 2004.
- [26]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698-770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27]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95>
- [28] H. S. Lee.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on cre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4.
- [29] S. J. Lee, S. K. Lee.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1, no. 1, pp. 95-116, 1997.
- [30]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p. 85, 1980.
- [31] B. K. Bryant.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53, pp. 413-425, 1982.
DOI: <https://doi.org/10.2307/1128984>
- [32] S. H. Park. *Empathy and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ns.
- [33] J. H. Nam. *The effect of a loving-kindness meditation program of the empathy, emotion, and stress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2016.
- [34] A. L. Antonio, M. J. Chang, K. Hakuta, D. A. Kenny, J. F. Milem. Blending content and contact: the roles of diversity curriculum and camp heterogeneity in fostering diversity management competency.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 3. no. 4, pp. 380-396, 2004.
DOI: <https://doi.org/10.5465/AMLE.2004.15112544>
- [35] S. E. Wilson, J. Prescott, G. Becket. Empathy levels in first-and third-year students in health and non-health disciplines.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vol. 76. no. 2, pp. 1-4, 2012.
DOI: <https://doi.org/10.5688/ajpe76224>
- [36] C. Jimenez, P.M. Navia-Osorio, C. V. Diaz. Stress and health in novice and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6, no. 2, pp. 442-455, 2010.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5183.x>

여 현 주(Hyun-Ju Yeo)

[정회원]



- 2013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료과대학원 임상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기본간호